Base Story

토끼 : 악역 // 거북 : 선역

**hare and tortoise**

어느 깊은 숲 속 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는 오늘도 엉금엉금 땅을 천천히 기고 있었습니다.  
거북의 뒤에서 토끼가 폴짝폴짝 뛰어오고 있습니다.  
거북의 옆에 도착한 토끼는 거북이에게  
“거북아, 너는 걸음이 정말 느리구나 오늘안에는 집에 돌아갈 수는 있는 거니?”  
라는 토끼의 말에 거북은

1. (성이 난 목소리로) 병신새끼 개노답이네 ㅋㅋㅋ 한판 뜨자
2. (차분한 목소리로) 토끼야,